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61

2016. 3.6

2016년 주님의교회 표어
그들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출 5:3)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19-20)

오늘의 주요기사

- 2 통일선교특집
- 3 생각하며 성경읽기
- 4 본당음향공사, 소년부수련회
- 5 무슨 생각 하십니까
- 6 예배드라마, 부리도생각
- 7 묵회 칼럼
- 8 아기나들이

교회 일정

3/6(주일)	성찬주일
3/8(화)	늘푸른대학 개강
3/14(월)	정기당회
3/20(주일)	종려주일, 입교 및 세례예식
3/21(월)~26(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25(금)	성금요일예배
3/27(주일)	부활절 송파구 연합예배, 부활절 예배 드라마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계절의 오고 감을 아는 생명. 자연의 질서 속에 우리가 핏계치 못하도록 만드신 분의 성품과 사랑이 숨어 있다.

세례와 회개를 통한 돌이킴의 기간

사순절의 신학적 의미

사순절은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절기인 부활 절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시작되었다. 부활절 전 7번째 주간의 수요일(‘참회의 수요일’ 혹은 ‘재의 수요일’)에 시작하여,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계속되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불린다. 간단히 말해서, 사순절은 세례와 회개를 통한 돌이킴의 기간이며, 회개, 기도, 화해, 금식, 세례 언약을 통한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 절기이다.

4세기 말에 이르러 부활절은 교회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으며, 초대교회는 이처럼 세례와 깊은 관계가 있는 부활절을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부활절에 앞서 십자가의 수난을 명상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세례를 준비하고, 새롭게 세례를 받는 교인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부활 주일을 맞이하였다. 이것이 사순절의

역사적 배경이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순절이 세례 후보자들의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처음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초대교회 당시 세례 후보자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매우 어려운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부활주일 전날 밤이나 새벽, 혹은 부활주일 아침에 세례를 받았다.

초대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절 세례를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세례 후보자들에게 특별히 금식을 요구하였다. 후에 사순절 금식은 교회의 모든 경건한 성도들에게도 요구되었다. 주후 3세기의 히폴리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주일에 세례 후보자들은 금요일과 토요일과 부활주일 전야를 온전히 금식하였다. 4세기경에는 모든 교인들이 세례 후보자들과 함께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사순절 기간 내내 금식에 동참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이르면, 사순절은 세례 후보자들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다.

요컨대, 애초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시간, 특별히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한 훈련 기간으로 시작되었던 사순절은 아우구스티누스 때에 이르러서는 세례와 상관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발전되었다. 결론적으로, 사순절은 두 가지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후보자들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여정 및 그리스도의 수난에서 보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의 의미이다.

함즐함울

이 글은 주송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144~155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통일선교특집

주님이 흰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 통일의 꿈을 그려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님의교회 통일선교팀에서 섬기고 있는 탈북청년 김성0입니다. 2005년 한국에 정착하면서 흰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배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국제정치론을 배우며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통일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졌습니다. 탈북으로 새롭게 이산가족이 된 북한 이탈주민들을 보며 '냉전의 산물인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가져다 줄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저의 꿈을 위해서 영국 글래스고우 대학에 진학하여 국제사회 일원이자 통일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외교적 분석을 통해 통일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입학허가 기준에 맞는 영어성적

을 받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1년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3학기제로 휴학이 허용되지 않는 학사 제도로 인해 그토록 갈망했던 영국 유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절을 단고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섰습니다. 연세대 대학원 통일학 협동과정에서 진행한 '청년 통일전문가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통일 이후 유럽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의 모습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서독 사회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며, 우리의 통일준비과정에서도 사회·문화 차원의 다층적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대학원 진학의 꿈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일한국에 기여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로 발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과 배움의 열정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탈북과 한 번의 복송을 겪으면서 북한 사람이라는 수치심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조선족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까? 의심하였지만, 말씀을 읽고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은혜에 빚진 자로서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송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오히려 북한을 품게 하신 하나님 사랑은 민족의 회복과 통일의 실현을 위해 저 자신을 헌신해야겠다는 꿈으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의 목표와 꿈을 명확해졌고 지금도 배움의 여정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는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0 탈북청년

출발! 통일선교기도회



2월 25일 저녁 8시 주님의교회 3층에서는 울려 퍼지는 찬양소리를 쫓아 재촉하는 발걸음이 분주했다. 첫 통일선교기도회가 열린 것이다. 관련사역부서원 뿐 아니라 주보에 난 광고를 보고 오거나 부부가 함께 온

분들도 있었다. 통일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주축이 된 찬양팀이 기도회의 불을 지폈고, 이어서 허준 목사님의 간증과 기도 인도로 남과 북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한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렸다. 기도회 즈음 연일

보도되는 강대강 대치국면에 들어선 남북관계 소식에 암담한 마음이었지만, 기도로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온전히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였다.

함줄함울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85

聖物(성물)의 材料(재료) 중
阜角 木(해달 껍데기 : 해달의 가죽)

너는 조각 목으로 상을 만들되 ~ 또 조각 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뉘는 것이니라 (출애굽기 25장 23~28)

너는 조각 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출애굽기 26장 15)

辭典的(사전적) 意味(의미)

찰 풀과의 낙엽활엽교목이다. 산기슭이나 개울가에 나는데 키는 15~18m이고 가시가 많으며 여름에 연두색의 꽃이 핀다. 광야에서도 구할 수 있는 목재이며 열매와 가시는 약재로 쓰이고

재목은 가구재로 쓰인다.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언약궤(증거궤, 법궤)와 진설병상과 분향단과 성막의 벽체를 만드는 재료이다. 성막의 용도는 거룩한 것이지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좋은 목재를 쓰지 않고 불품없는 조각목을 사용한 것은 거룩함의 대상이여 호화임을 알게 하고 기구가 아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阜(검을 조. 하인 조) : 희다. 밝다. 깨끗하다. 텅 비다. 아뢴다는 뜻을 지닌 白(흰 백)과 손이나 많다. 완전하다는 뜻이 있는 十(열 십)의 합자로 【깨끗해지도록 손으로 빨아야 하는 옷의 때가 검다. 이처럼 빨래하는 자

가 하인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獾(해달 달. 수달 달) : 개 또는 짐승을 대표하는 犬(개 견)의 변형체 犴(개 사슴 록)과 기대거나 믿는다는 뜻을 지닌 賴(의지할 퇴. 힘입을 퇴)를 합쳐【짐승 중에서 물고기를 몰아오도록 길들이면 믿고 맡길만한 것이 해달, 수달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角(뿔 각. 다툼 각) : 우뚝함을 나타내는 丿모양의 형태소에 肉(몸 육. 고기 육)의 변형체 冉을 합쳐【우뚝한 것이 짐승의 몸에 솟아있으니 뿔이다. 이러한 뿔로 다툼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여기서는 조각목의 가시를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木(나무 목) : 뿌리와 줄기와 가지를 나타낸 상형자이며 갑골문의 𣎵이다.

함줄함울

섬기는 손 29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에서 겨자씨의 사명과 사역과 겨자씨 리더의 역할을 함께 기도드리는 목회자의 손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함께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섬김의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줄함울

성경 바로 읽기 | 샐리 맥페이그의 <은유신학>을 통해서 ❶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맥락과 비유, 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고어를 현대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 문장을 다듬으면서 수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성경이 몇 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고도의 은유를 통해 씌어졌기 때문에 의미를 계속 반추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 함줄함줄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생각하며 읽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의 탁월한 신학자 샐리 맥페이그의 주저(主著) 가운데 하나인 ‘은유 신학’ 중에서 위 취지를 잘 드러내는 챕터들을 골라 사례 중심으로 요약하여, 연간 약 16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초대 교회에서 비롯되어, 10세기에 오늘의 형태로 정리되었다는 <사도신경>에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분명 굉장히 오래된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니, 인간의 인식으로는 그 개념을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하나님은 기록되던 당시 사회에 통용되던 개념이나 비유를 들어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끝없이 높고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으로 ‘왕’, ‘구세주’, ‘아버지’ 등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지위와 명칭을 빌어 표현하였습니다. 만약 당시에 대통령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대통령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유로 선택된 표현이 문자로 정착되면서 발생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성에 기초를 두어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 하나

님’이라고 기록된 표현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모델의 한계 속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형상을 띤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절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우월하고, 남편은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월하고 열등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남자와 여자, 왕과 신하, 백인과 유색인, 유대인과 독일인, 상사와 부하, 갑과 을, 부자와 노숙자에게 인격적으로 우월하고 열등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매달렸던 바리새인들을 여러 번 질타하셨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라고 말하고,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의 틀 속에

갇히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비유와 은유를 통해 전하고자 하신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겠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란 표현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버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을 주는 하나님’인 것이지요.

미국 예일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밴더빌트 대학에서 오래 조직신학 교수를 지낸 샐리 맥페이그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의 근거로 삼는 성경과, 오랜 신앙의 관행에 따라 믿고 있는 언어 속에 있는 은유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함줄함줄에서 2016년 특집으로 시작한, <성경 바로 읽기>라는 이름의 이 기획은, 샐리 맥페이그의 <은유 신학>(정애성 역, 다산글방, 2001. 현재 절판)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사례와 이론을 쉽게 풀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호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기독교의 뿌리-은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줄함줄

십자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길...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이 다가왔다. 세상 살기가 바빠서 예수님을 생각하기에도 벅찬 우리이기에 이렇게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 절기는 더 없이 소중한 절기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 초등부에서 아이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에 와 닿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 보자고 했다. 처음에 조금 망설이던 아이들 사이로 여기저기 수줍게 손을 올리는 아이들이 있었다.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들 보다 더 힘차게 손을 들었다.

사순절이면 생각나는 어느 중세 교

부의 이야기가 있다. 오랫동안 목회자의 자리가 공석이었던 한 가난한 농촌 마을의 교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도시의 교부에게 목회자를 보내달라는 교회의 의견을 전하러 한 가난한 농부가 대표로 찾아왔다. 하지만 당장 마땅한 적임자가 없었기에 교부는 그 농부를 임시로 설교자로 세웠다. 몇 주가 지난 뒤 교부는 변복을 하고 자신이 맡은 교구의 교회들을 순시하다가 지난번 목회자를 요청하러 왔던 그 농부의 교회를 찾아 농부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설교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 설교자로 선 그 농부는, “하나님이 세상을...” 한마디를 하고 눈

물을 흘리고, “이처럼 사랑하사...”를 말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를 말하다가 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메시지만 눈물반의 설교가 마쳤다.

예배를 마친 후 교부는 농부를 찾아가 물었다. “당신은 설교를 하며 어찌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에 그 농부가 말하기를, “십자가를 말하는데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총의 계절 사순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혹여나 무뎌져 버린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십자가가 아무런 감흥 없이 우리의 마음을 비껴 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시간이 그저 지나는 시간 일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미려한 십자가는 오늘도 저기 갈보리 언덕에 우뚝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사는 것이 바빠 십자가를 볼 겨를 없이 사는 우리를 한번 보아 달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잠시 가던 길을 멈춰 한번 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눈물로 십자가를 말하던 가난한 농부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수줍게 손을 들어 그 사랑에 응답해 보는 건 어떨까?

신주찬 전도사

아름드리(소년2부) 봄맞이 수련회

예수님의 섬김 그리고 예배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며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드리 친구들이 되고자 2월 20일(토) 봄맞이 수련회를 가졌다. 새로 올라온 5학년, 6학년과 교사들이 친밀감을 쌓기에 좋은 시간이었다. 봄이라고는 해도 아직은 쌀쌀한 날씨에 설 연휴를 막지내고 맞이해서인지 참석인원이 예상보다는 적었다. 소년부의 상징은 찬양과 율동이다. 먼저 청년부의 도움으로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과 노래로 예배했다. 남과 북에서 동시에 살았던 탈북청년들이 체험한 북한의 실상을 듣고 북한의 기아대책을 위해 섬겨야만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는 성서학습을 통해

‘예배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섬김을 통해 우리 삶속에서 실천해보았는데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도권사들을 비롯한 교사들이 손수 만든 식사와 간식을 먹으며 열심히 뛰놀고 게임과 학습에 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무척 대견스러웠다. 열성적으로 이끌어준 이태우 전도사는 교사들의 수고로 은혜가운데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과 찬양이 살아나며, 어린이들은 예배의 기쁨을 깨닫고 섬김을 우리 삶속에서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는다.

소년2부장 전선재 안수집사

겨자씨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겨자씨인도자 수련회가 지난 2/19(금)~20(토)까지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3년 만에 교구가 바뀌면서 진행된 수련회는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여, 함께 공동식사를 나누고, 강사의 특강과 뜨거운 기도회로 첫날을 마무리하였다. 둘째날에는 “겨자씨의 사명과 사역”, “겨자씨 원을 이해하는 방법”, “겨자씨, 작은 교회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부목사들의 연속된 강의가 있었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함께 웃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각 교구가 모여 한해를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수고하는 겨자씨인도자들을 더 많이 격려하고,

한정된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교구목사들이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겨자씨인도자들이 힘을 얻고, 2016년도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 교회 어느 행사, 사역에 마찬가지로이지만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드러나지 않게 섬겨준 소그룹 위원들, 찬양과 방송실로 섬겨준 분들, 기도해주시고, 강의해주신 담임목사님과 모든 분들, 무엇보다 함께 해준 겨자씨인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장수현 목사

대예배실 음향시설 공사를 하다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님의교회 대예배실 음향공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대예배실의 음향시스템이 예배실 전 영역을 골고루 커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노후로 인해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메인 스피커의 교체였다. 라인어레이 타입의 스피커로 먼 거리까지 소리를 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스피커며, 음질도 뛰어나 좋은 소

리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 낡은 배관과 케이블들을 전부 교체하였고, 성가대 마이크도 좋은 성능의 제품을 8개 배치하여 풍성한 소리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음향환경에 적응과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신 많은 성도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장태성 음향간사



무슨 생각 하십니까?

우리 아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머리속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2016년 부활절 예배드라마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주님의교회가 2012년부터 드라마 형식으로 드린 부활절 예배는 올해로 벌써 5년째가 된다. 예배드라마는 하나님 말씀을 시청각화하여 말씀에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배 형식으로, 특별히 드라마 중에 찬양을 함께 하고 간단한 소품을 준비하므로써 주님의교회 온 성도가 참여하여 왔다. 이번 부활절 예배드라마는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분열된 관계에 있는 우리 현실을 돌아보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통해 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험난했던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통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야곱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끊임없는 세상적 조건과 계약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야곱의 삶은

우리의 삶을 투영한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으며, 그의 가정은 사랑과 용납의 울타리가 아니라 경쟁과 싸움, 분열로 얼룩졌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일그러진 가정 속 갈등으로 결국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 잃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요셉을 빛으시는 하나님

요셉은 그의 전부였던 육신의 아버지 야곱을 떠남으로 고통의 구렁텅이에 내던져지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참 화해를 통해

상실과 슬픔에서 회복되는 은혜 또한 누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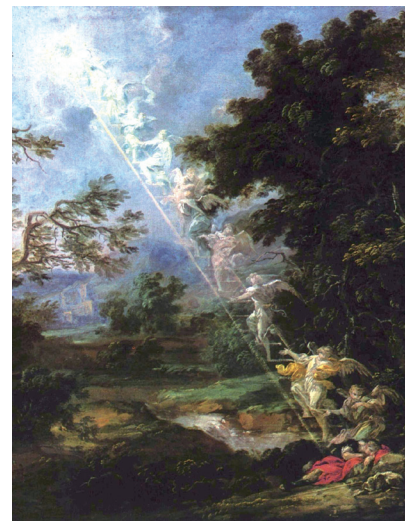
이번 예배드라마에는 여러 인물들의 상실과 아픔이 깔려있다.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죽음으로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절망은 새 생명과 믿음의 성장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는 미스터리 과정이라 하겠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지금 의상팀, 소품팀, 무대미술팀, 무용팀, 크고 작은 연기자팀 그리고 그 뒤에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을 묵묵히 담당하며 지원하는 많은 이들의 헌신이 올해의 예배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부활절까지 남은 기간에 하루 정도 여기에 내 작은 수고도 보태보면 어떨까?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교회와 세상 속의 모든 크고 작은 갈등과 아픔이 화해와 화합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한다.

함줄함줄



마이클 루카스 레오폴드 윌만이 그린 ‘야곱의 사다리’ (그림출처: 위키미디어 커먼)

부리도 생각

이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교리이다. 기독교는 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가 하나되신 하나님이라는 교리이다. 안타깝게도 이 교리는 종종 기독교 내부에서나 타 종교 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되기도 한다. 세신을 섬긴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유대교나 이슬람과도 갈등을 겪기도 한다. “어떻게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세 분이시지 한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전통적으로 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로 여겨졌고 아예 “신비”로 다루어졌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이기에 “신비”라는 말이 당연할 것이고 이를 이해하려는 시도자체가 불경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이 교리에 대한 이해의 추구

와 시도는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명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된 예수에 대한 교리 또한 이에 대한 증거한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가지시되 두 본성 사이에는 혼돈도 변화도 없으며 나뉘도 분리도 없다: 각 본성이 가진 고유함은 하나됨으로 상실되지 않으며 오히려 보존됨으로 한 인격을 형성하신다.” 어그스틴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에게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지만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세위로 존재하시며 세 위의 관계는 갈등도 다툼도 분리도 아닌 하나됨이요 평화다. 기독교는 평화의 종

교요 상생의 종교요 공동체의 종교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다름을 무시하고 억압함으로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다름을 존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평화를 이루라는 거룩한 사명의 음성이다. 그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든, 사상 간의 갈등이든, 심지어 종교 간의 갈등이든 간에, 하나님의 궁극적 소망은 오직 평화이다.

안타까운 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신비”로만 여기는 바람에 교리가 갖는 근본 뜻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에서 나타난 모습이나 오늘날 교회끼리의 갈등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심지어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도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섬김으로서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서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바른 기독교의 자세이다. 만물은 뜨거움과 차가움, 밝음과 어두움으로 이루어지며 이 둘은 함께 존재하면서 화목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룬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며,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아인슈타인 이후의 근대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양자역학도 같은 흐름일 것이다.

올해는 먼저 기독교 안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땅이 교회에 소망을 두게되는 그날을 기대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포기할 일도 아니다. 이를 포기함은 하나님을 포기함이요 세상을 포기함이기 때문이다.

박원호 담임목사

〉 ‘부리도’ 는 주님의교회가 있는 지역의 옛 지명입니다. 한강 남쪽에 있던 작은 섬이었으며 새들의 낙원이었다고 합니다.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목회칼럼

빠름보다 중요한 바름

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는 ‘느림’이라는 책에서 “속도는 기술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터시의 형태이다”고 말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빠름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속 성장을 일궈낸 대한민국은 속도에 더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하면서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커피 자판기의 컵이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리고,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올라갑니다. 도로 위에서는 한 대라도 추월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틈을 비집으며 운전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인원이 천명, 이천명 늘어나면 그것을 성장과 부흥이라고 말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 수백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세미

‘정확하게 반복하다보면 속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속도를 내려고 하면 힘에 부치고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나에 참석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빨리 부흥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왜곡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빠른 성공을 통해 많은 헌금을 하면 부러워하며 박수쳐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바른 길을 걸어왔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바르게 가기 위해 늦어지는 사람을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속성장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더니즘이 지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오는 것처럼, 속도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속도를 대신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보다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 빠름’보다 ‘절대 바름’이 ‘상대적 빠름’이다.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잡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처럼, 무언가 꼬이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

서 원칙에 따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신속-정확’이라는 표현은 ‘정확-신속’이라는 말로 바꾸어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반복하다보면 속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속도를 내려고 하면 힘에 부치고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시계는 우리에게 1분 1초를 재촉합니다. 누군가 시계의 초침 소리가 “지금, 지금”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반면 나침반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의 미세한 떨림이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주고 있듯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침반과 같이 미세한 떨림의 수고와 노력으로 빠름이 아닌 바름을 발견하고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홍섭 목사

정신학원에 갇힌 한국 기독교의 역사 28

일제의 교육령을 거부한 정신여학교에 사회가 비난 시각을 갖도록 조장한 결과의 산물, ‘B사감과 러브레터’(1)



B사감과 러브레터의 무대, 정신여학교

일제 교육령의 근간은 한민족을 말살하여 일본인화 하되, 2등 국민으로

차별대우하겠다는 것이었다. 3·1 운동의 민족적 거대한 저항에 부딪

친 일제는 회유책의 일환으로 교육령을 완화시켰다. 그러자 이 교육령을 수용하는 학교가 대부분이 되었고, 장로교계 학교만 남게 되었다. 일제는 학교가 시설과 재정 그리고 자격을 갖춘 교사들만 갖추면 자격을 갖춘 학교가 되는데 장로교계 학교는 그것도 갖추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고집한다고 여론을 조장해나갔다. 그러자 일간지를 포함한 사회적 여론도 일제가 유도한대로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교사들의 불만을 마구 토로해냈다.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는 다음 신문기사에서 소설의 모티브를 착안해 내었다. 기사 내용이 얼마나

선생님들에게 냉소적인 시각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다.

‘시내 연지동에 있는 사립정신여학교에서는 지난 14일 동맹휴학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그 학교 기숙사 감독 겸 교사로 있는 최명복 여사는 학생들을 전제적으로 하여 조금도 학생의 인격을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터인즉 인격해방의 소리가 요란한 오늘날에 그러한 선생을 갈아달라는 것과 둘째로 (하략) (『解放을 絶叫하고』, 『동아일보』, 1922년 10월 19일)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교회단신

군, 경 입대자녀를 위한 부모기도회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드려지는 입대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2월 23일(화) 사랑나무실에서 부모들과 군경선교회팀원들이 모여 합심기도로 드렸다.

김용웅 목사는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남북정세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 기도의 무릎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만나고 복무하는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마음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군복무를 선택한 마음과 편한 마음으로 마치기를 함께 기도를 드렸다. 군선교팀에서는 3월 26일(토) 3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을 하며 전망대 관람과 병식체험에 많은 교우들의 참석을 바랐다.

함줄함울

교회단신

서울 은퇴목사 연합회 위로 예배



2월 16일 화요일 오전 중예배실에서 서울은퇴목사 연합회 2월 월례회를 주님의교회 주관으로 드려졌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말씀을 놓이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불러주심과 찾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종으로 평생을 늙으신 선배 은퇴 목사님께 말씀을 전했다. 함께한 우리

들은 은퇴목사님들이 남겨주신 전통과 사역들이 후대에 은혜롭게 남기를 바랐다. 5번째 맞이하는 은퇴목사 연합예배는 주님의교회 교역자들이 불러드린 특송과 중식과 선물을 드렸으며 은퇴목사 연합회에서는 주님의교회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함줄함울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아기나들이



윤진희 아기

2015년 10월 24일생

1.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2. 건강하고 총명하며 올바른 인성을 갖춘 아름다운 아이로 크기를
3. 사랑받는 아이, 사랑주는 아이가 되기를

아빠 윤상현 / 엄마 남초롱, 2016년 2월 14일 3부 예배

알립니다

1. 입교 및 세례예식: 3/20(주일) 3부예배

교육 : 2/14~3/15 (5주) 오후1:30~3:00 초등부실(3층)

문의 : 나관주안수집사(010.6823.5216)

2. 늘푸른대학(제8기) 1학기 개강

일시 : 3월 8일(화) 오전10:30 중예배실(지하)

문의 : 권성호안수집사(010.3726.1444)

3. 2016 해외선교 비전트립

키르기즈스탄(8/2~10, 15명) 베트남(8/3~8, 30명)

케냐(8/12~20, 7명) 코스타리카(7/21~30, 10명)

신청 : 3/27까지 매 주일 오전8:30~오후2:00 로비(1층)

4. 비전샘예배(재수생을 위한 예배)

일시 : 매 주일 오전8:20 다목적교육관(4층)

문의 : 강현규목사(010.2985.7775)

1 2 S T E P S B I B L E S T U D Y

Reform 12 steps

"교회성장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Bible & Spirituality

HOLY BIBLE

성경과 영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

1.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
2.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반석
3. 기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
4. 과학, 하나님 나라의 동반자
5. 성령, 하나님 나라의 기동
6. 나,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 개강 2.17(수) - 3.23 | 7:15 PM, 대예배실

▶ 문의 | 홍성욱 목사 010-9431-9910 ▶ 추가모집 | 1.27-2.17 www.pcltv.org

'화해'의 간증기사를 보내주세요

사순절을 맞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화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혹은 자신과의 화해를 경험하셨다면, 아름다운 화해의 이야기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세요.

- 주제 : 화해의 이야기

- 분량 : 2000자 이내

- 보내실 곳 : hamletter@daum.net

함줄함울